

## 젊은 할머니

이 춘 명(시인)

커다란 큐빅 머리핀  
알록달록 꽃무늬 원피스  
맨발에 얇은 운동화  
손가방 흔들며 뛰어가는 멋쟁이  
아주머니 아하 돌아보며  
할머니예요

반찬차 트럭에서 장을 보고  
검정 봉지 양손 무겁게  
힐링 트로트 네박자에 장단 맞추는  
주름살 너머 호박꽃  
탱탱한 할머니예요

---

남이 무어라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잘못 될 것은 없다. 나이가 먹어 할머니지 몸뚱어리 속의 마음이 쭈그러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인식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애써 그렇게 쭈그러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새파랗고 가벼운데 억지로 우중충하고 무겁게 꾸미고 싶지 않다. 적어도 멀쩡하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살면서 기죽을 일이 무어가가 있어 굳이 쭈그러질 일이 있을까, '맨발에 얇은 운동화/ 손가방 흔들며 뛰어가는 멋쟁이' '힐링 트로트 네 박자에 장단 맞추는' 탱탱한 할머니면 다 되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누군들 말릴 수가 있을까, 못하는 것이 모자란 것이다. 예사 일상의 언어로 자신감을 실어준 두개의 연에 담긴 생동감을 꺾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윤제철)

## 밥값 이야기

朴水鎭 (시인)

밥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굶어 죽어가는 생명들이 수 없이 많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한 끼 밥의 귀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낀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밥 먹기 역사였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오천년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먹는 일의 귀함을 잊고 산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마음이 넉넉한 것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 뿐이었다. 설을 쇠기가 무섭게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했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통에 꽃피는 봄날도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오죽하면 봄 들판에 피는 흰 꽃을 보고 조팝꽃 이팝꽃이라 이름 붙였겠는가.

가난한 시절 배를 채울 먹거리는 오직 밥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의 밥은 목숨의 다른 이름이었다. 얼마나 밥이 소중했는지 밥에서 비롯된 말들만 보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밥값 하다. 밥벌이 하다, 밥그릇싸움 하다. 밥 먹듯 하다, 밥통이 크다 등 밥이 들어가는 우리말 단어나 어구가 참으로 많다. 내가 어린 시절의 일반적인 인사 또한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느냐'였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평생을 두고 하는 말도 '밥 먹었느냐? 밥 먹어라'였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서인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은 더없이 다정한 인사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밥 안 먹는 것은 보통이고 인스턴트 음식이 밥상을 대신하기 일쑤다. 밥 짓는 냄새에 침을 흘리기는 고사하고 밥을 차려 놓고 불러도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밥상머리에서 농부의 고마운 손길을 말하는 것도 이제는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굶주려 본 사람만 아는 소중한 밥 한 그릇의 가치도 잊고 살 때가 많다.

밥 이야기를 하자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김소운 선생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 한 부분이 생각난다. 실직한 남편과 일 나가는 아내,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 아침을 굶고 집 가까운 회사로 출근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래도 점심시간이 되어 하릴없이 집에 돌아온 아내는 뜻밖에도 남편이 차려놓고 나간 밥상을 마주 한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웠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王后)의 밥, 걸인(乞人)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 두오.”

낮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瞬間),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남의 이야기를 전하듯 쓴 글이지만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는 구절이다. 너나없이 가난하던 시절 하얀 쌀밥 한 그릇은 그대로 ‘왕후의 밥’이었다. 가난이 도리어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비록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난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로 살 수 있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내가 요즘 공부터로 삼은 선원의 식당 배식소 앞에는 어느 경전에서 따온 글인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씌어져 있어 볼 때마다 나를 부끄럽게 한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計功多少量彼來處, 忖己德行全缺應供)”

좀 살벌한 이야기지만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있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니… 도대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얼마 전 나는 천직으로 삼던 일을 접으며 위안 삼아 쓴 글에서 이런 구절을 쓴 기억이 난다. ‘어찌 돈을 버는 일만이 일이던가. 화초를 키우는 일, 밤하늘 별을 바라보는 일, 오래 생각하는 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 등 사는 동안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고 많다.’고

마음을 닦는다고 한철 나름대로는 부지런을 떨었지만 별다르게 한 일 없이 따뜻한 저녁밥상을 받으며 밥값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제대로 밥값을 하고 사는가? 이 밥을 받을 만큼 지은 공덕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 너무 얻어만 먹어 빚만 잔뜩 남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래도 분에 넘치는 ‘왕후의 밥’이 자꾸만 목에 걸리는 하루이다.